

〈서 평〉

『현대 종교철학의 이해』

(배국원 저)

하 현 애*

1. 저술 동기에 대하여

배국원 교수의 『현대 종교철학의 이해』는 최근의 종교철학과 종교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그러한 동향이 현대 상황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 책이다. 배 교수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종교철학을 “종교의 본질을 논의”하는 학문으로, 종교학을 “여러 종교들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는 학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한 최근의 동향을 “종교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질적 변화”(종교철학)와 “종교들의 자료에 대한 양적 변화”(종교학)로 규정짓는 한편, 그러한 논의들이 신학적 방법론에 미치는 의미를 모색하겠노라고 이 책의 저술 의도를 밝히고 있다. 배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종교철학·종교학·신학의 관계를 묻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종교철학과 종교학적 사유체계가 신학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그의 이러한 저술 동기는 이 책의 부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이 책에 대해 ‘종교에 대한 후기 근대적 접근’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이른바 후기근대(포스트 모던)적 정황은 그가 이 책에 실린 글들을 쓰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그의 문제 의식은 “근대의 몰락이 종교학도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 신학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고 있는 제7장(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후)에 잘 나타나 있다. 배 교수가 이 책에서 종교와 관련하여 중요한 포스트 모던 징후로 제시한 현상은 ‘종교다원 현상’이다.(배 교수는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와 ‘종교다원 현상’-religious plurality-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과정, 종교학

2. 구성 체계에 대하여

전체 7장으로 짜여진 이 책은 크게 보아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논의는 최근의 종교철학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제1장은 영미권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최근 종교철학에서 진행되어 온 논의의 전체적인 윤곽을 개관한 것이다. 그가 다루고 있는 주요 경향은 개혁주의 인식론, 반기초주의, 해체주의, 종교다원주의 등이다. 제1장이 총론에 해당한다면,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논의는 각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배 교수는 여기에서 현대 종교철학의 주요 의제인 신앙·신념·교리에 대한 논의를 비트겐슈타인·알빈 플란팅가·린드벡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2장(교리 없는 신앙)에서는 특정한 교리에 얽매이지 않은 신앙의 가능성을 역설한 비트겐슈타인의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종교란 증명되고 검증되어야 하는 명제가 아니라, 증거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삶의 형태라고 말하였다. 제3장(신념의 논리)에서는 분석철학의 전통에서 있으면서도 개혁주의적 신앙을 고수하는 '개혁주의 인식론'의 대표 주자인 알빈 플란팅가의 '신념의 기본성'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후기 분석철학적 논의를 신학적 방법론에 적용하고자 한 린드벡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린드벡은 교리의 새로운 의미를 종교에 대한 이론의 맥락에서 찾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지금까지 한국의 종교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주제들을 소개·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의 둘째 부분은 종교학의 정체성과 방법론을 학사적 맥락에서 정리하는 한편, 종교학과 신학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것으로서, 제5장과 제6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5장(종교학과 신학)에서는 종교 다원현상을 통해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종교학과 신학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인 맥락에서 서술하고 있다. 종교학과 신학의 상호보완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의 논의는 종교학을 “기독교 이후”라는 지평을 열기 위해 태동한 학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의 입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 제6장(종교학의 비교방법론)에서는 비교방법을 종교학의 존재론적 기반으로 보는 입장에서 비교연구의 의의를 서술하는 한편, 비교종교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정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종교학의 방법론을 학사적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서, 종교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의 셋째 부분은 이른바 포스트 모던 현상이 종교의 미래와 종교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으로서, 제7장(포스트모더니즘, 그 이후)이 여

기에 해당된다. 배 교수는 '근대를 뛰어 넘자'는 후기-근대(포스트 모던)의 구호가 현대인의 종교성을 완전히 태워 버릴 수도 있고, 신선하게 재생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배 교수는 여기에서 문화적-귀납적-협의적 개념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철학적-연역적-광의의 '포스트모더니티'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음을 논급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제7장의 논의는 이 책의 부제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인 동시에, 이 책의 중요 집필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제7장의 논의는 다소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7장의 논의는 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논의를 정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를 관련 짓는 대목은 제7장의 마지막에 소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결론 또한 하나의 우화를 제시하는 선에 그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3. 종교철학 · 종교학 · 신학을 논의하는 관점에 대하여

종교학사 내지는 종교학 방법론 혹은 종교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 주목되는 장은 제1장, 제5장, 제6장이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흐름을 고려하여 1장, 6장, 5장의 순서로 이 책의 논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배 교수는 제1장에서 종교철학의 최근 동향을 정리하는 한편, 종교철학과 종교학, 종교철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펼치고 있다. 그가 종교철학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철학의 종말' 논란과(아마도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종교철학의 개념적 광의성과 학파적 애매성이다. 배 교수는 이것을 종교철학이 갖는 본연적인 모호성으로 파악하는 한편,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종교철학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서, 배 교수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현상은 개혁주의 인식론, 반기초주의와 해체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등이다. 배 교수는 특히 종교다원주의로 야기된 정보의 양적 증가 → 사상의 질적인 변화 → 서양철학의 고립성 부각 등의 상황을 '제3의 충격'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종교철학의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제6장은 종교학에서 '비교'가 차지하는 방법론적 위상을 정리하는 한편, 현상학적 비교 · 역사적 비교 · 주제별 비교 등 종교학의 다양한 비교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배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가 종교학의 존재론적 기반이었음을 전제한다면, 비교종교학의 관점과

역사, 그리고 유형을 개관해 준 제6장은 이 책의 주요한 미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종교학과 신학의 관계를 통해서 종교학의 신학적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배 교수는 종교다원 현상의 함의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배 교수는 종교학의 방법론적 가설 가운데 하나로서 종교다원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는 종교다원 현상과 (신학적 주장으로서의) 종교다원주의를 구별하고 있다. 종교다원 현상은 신학에 대한 종교학의 위치를 묻게 하는 주요한 동인이 된다는 것이다. 배 교수에 따르면, 미국대학에서 종교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주목할 만한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종교다원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에릭 샤프가 『종교학-그 연구의 역사』에서 제시한 종교학 성립의 세 가지 필요충분 조건(적절한 동기/ 충분한 자료/ 적당한 방법)과 관련하여, 낭만주의의 동기와 계몽주의의 영향에 힘입은 자료의 확대라는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의 종교학이 서구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종교들’(religions)에 대한 열정적 탐구 의욕과 ‘종교로서의 종교’(religion qua religion)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동기부여의 맥락에서 종교학의 주류 영역을 종교사와 종교현상학으로 분류하는 대목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그는 이 두 영역과 함께 ‘종교에 관심 있는 인접 학문과의 연계’-religion and allied fields research-를 세 번째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배 교수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종교학과 신학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가 상정하는 종교학과 신학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그는 오늘날의 상황을 “종교다원화현상이 지구촌의 현실이자 미래로 등장하였고,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신학적 응답은 현대신학에 맡겨진 필수 과제가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배 교수는 이안 바버가 소개한 기독교와 과학의 4가지 관계 유형(대립/ 독립/ 대화/ 통합)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 종교학과 신학은 대화적 정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한편, 통합의 방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가 통합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은 종교신학과 비교신학의 논의이지만, 그 징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배 교수는 또한 종교학의 신학에 대한 관계를 가교교사, 비평가, 동반자의 셋으로 묘사하고 있다. 종교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한 배 교수의 관심은 신학교육에서의 종교학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천적인 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배 교수는 이른바 후기 근대적 상황에 처한 종교철학과 종교학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묻는 한편, 종교철학과 종교학이

신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펼치고 있다. 후기근대 상황과 관련하여 배 교수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교다원화 현상이다. 종교다원화 현상은 종교철학 내지는 종교학의 관심사와 신학의 관심사를 수렴하는 계기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 교수가 이 책에서 개진하고 있는 신학의 정체성은 다분히 이념형(ideal type)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현실 세계 속에서의 신학,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신학은 종교학과 상당히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신학과 종교학이 가려고 하는 목표는 같다”는 그의 주장이 다소 낭만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